

외연적 부정과 초언어적 부정: 대조화제와 부정접속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순영, 허세문, 강나영, 김효진, 박은정, 조숙정, 유재명, 정용식, 조정곤, 이정민
서울대학교 <irene88@daum.net, geisthoe@hanmail.net, clee@snu.ac.kr>

Denotational Negation vs. Metalinguistic Negation:

With Reference to Contrastive Topic and Negative Connective

Park S-Y, Hoe S-M, Kang N-Y, Kim H-J, Park, E-J, Cho S-J, Yoo J-M, Cho J-K, Lee C-M
Seoul National University <irene88@daum.net, geisthoe@hanmail.net, clee@snu.ac.kr>

요 약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부정접속사 ‘-지만(PA)’ 과 ‘아니라(SN)’ 의 화용적 성격을 통해서 초언어적 부정의 특성을 설명하려 한다. Horn(2002)에서 제시된 ‘단언된 것(what is asserted)’ 과 부정접속사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PA는 초언어적 부정에 의해서 대조될 수 없음을 보인다. 그리고 한국어의 대조화제의 부정이 PA접속사와 연결되는 특성을 통해서 대조화제는 외연적 부정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

1. 들어가며

본고는 초언어적 부정의 특성을 ‘부정이 적용되는 층위’ 의 문제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Horn(2002)를 따라서 초언어적 부정과 부정접속사(PA/SN)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두 접속사의 의미 차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부정접속사 PA와 대조화제의 연관성을 통해서 대조화제는 초언어적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2. 초언어적 부정과 그 쟁점

부정에 대한 오랜 연구 중의 하나는 부정이 가지는 비-진리조건적인(non-truth-conditional)에 대한 설명이다. Horn(1989)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산자(operator)의 의미를 ‘화용적인 중의성’ 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비-진리조건적인 부정으로서의 초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 이하 MN)을 진리조건적인 부정과 구별하였다.

- (1) a. The room was not warm; The room was SWELTERING.
- b. The King of France is not bald; There is no KING OF FRANCE.
- c. I don't like tom[eiDouz]; I like tom[a:toz]
- d. I didn't see two mongeese; You saw two mongooses.

MN은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연적 부정(Denotational Negation, 이하 DN)과 구분된다(Horn 1989은 Descriptive Negation) Carston 1996, Burton-Roberts 1989 등). (1)의 예시에서 앞부분만이 발화된 상황에서는 부정된 표현이 억양을 무시한다면 실제 세계에서 지시하는 외연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DN). 하지만 여기에 뒤따라오는 발화가 덧붙여지면 DN의 의미는 사라지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떠한 근거에서든지 앞의 발화를 부정하는 것’ (Horn 1989)으로서의 MN이 나타난다. MN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MN은 함축취소(1a), 전제

취소(1b), 음성형태에 대한 부정(1c), 형태상의 부정(1d)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¹⁾.

MN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Carston(1996)은 MN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Carston은 진리조건적인 부정만이 존재하며, MN은 단지 인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Burton-Roberts(1989)는 초언어적인 부정은 의미론적 모순관계(~P= P)를 가지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shimura(2001)은 실제 부정이 적용되는 층위를 설정함으로써 MN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와 다르게 부정의 의미를 더 세분하려는 시도도 있다. H. Lee(2005)는 MN이 두 부류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함축취소'와 '전제취소'와 같이 '개념적인 내용(conceptual content)'을 부인하는 경우와 단지 형태(form)적인 속성만 부인하는 경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부정이 '외연적인 부정'과 '함축취소와 전제취소 부정', '초언어적 부정'으로 삼분되어야 한다면서 중간 것은 DN의 성질에도 가깝다고 보나 이는 단언/함의의 부정으로서의 DN과는 다르다.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MN의 특성과 부정접속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MN의 의미를 탐색한다.

3. 부정접속사 PA-but 과 SN-but

한국어 부정접속사는 '-지만' (PA)와 '-아니라' (SN)²⁾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2) a. 그녀는 크지 **않지만** 농구를 잘해.³⁾
 b. ?그녀는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농구를 잘해.

1) MN의 특징은, 'rejoinder', 'rectification', 'garden-path', 'semantic contradiction', 'echoic use'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Horn 1989, 2002, Carston 1996, Levinson 2000, Burton-Roberts 1989 등)

2) PA/SN 구분은 다양한 언어에서 나타난다. 스페인어의 pero/sino, 독일어의 aber/sondern 등. 자세한 논의는 König & Benndorf(1998), Schwenter(2001), 이정민(2005)를 참조.

3) PA-but의 경우와 다르게 SN-but의 경우는 전건에 필수적으로 부정표지가 필요하다(König & Benndorf(1998), Schwenter(2002)). 한국어에서는 부정표지와 합쳐진 상태로 SN-but(아니라)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SN과 PA의 구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건에 부정표지가 나온 예문을 사용할 것이다. PA에서 부정표지가 존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Schwenter(2002)에 자세히 나와 있다.

- (3) a. 그녀는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키가 커⁴⁾.
 b. *그녀는 키가 작지 **않지만** 키가 커.

(2), (3)의 대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PA와 SN은 두 문장의 대조에 있어서 큰 차이될 보인다. König & Benndorf(1998)에 따르면 PA는 'R-함축'과 현실세계에 대한 상식과 관련된 '전형적인 추론'에 의해서 대조되는 쌍과 같이 사용될 수 있고, 진리조건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이나 'Q-함축'에 의해서 대조되는 쌍은 SN과만 사용될 수 있다. (2a)에서 보듯이 '키가 크지 않다'라는 명제에서는 '농구를 못 한다'라는 의미가 추론될 수 있고, 이렇게 추론된 의미와 '농구를 잘 한다'라는 표현은 서로 대조된다. 이와 다르게 (3a)와 같이 '키가 작다'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키가 크다'라는 반대 의미가 도출될 수 있고, 이는 SN으로만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König & Benndorf는 '말한 것(what is said)'과 구분되는 화용론적 의미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어휘적인 의미에 의해서 이러한 화용론적 의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초언어적인 부정은 SN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4) a. *영희는 행복하지 **않지만** 황홀해.
 b. 영희는 황홀하지 **않지만** 행복(하기는)해.
 (5) a. 영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황홀해.
 ?b. 영희는 황홀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

(4)에서 보듯이 MN은 PA와 나타나지 못한다. 하지만 (5a)는 전형적인 함축취소의 모습을 보여준다⁵⁾. 이러한

4) 물론 가장 무표적인 문장은 '그녀는 키가 크지 **않고** 작아'로 나타날 것이다.

5) (3a), (5b)의 경우와 같이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경우는 DN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그 의미상의 특징과 상관없이 모두 MN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의미적 모순관계'가 MN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i) I'm not happy; I'm miserable
 과 같은 경우도 실제 의미론적 모순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MN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Horn p.c.). 사실 (i)과 (3a)처럼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처럼 긍정과 부정의 술어로서 척도 역전을 가져 오기 때문에 하나의 척도에 들어올 수 없는 관계(C. Lee 2000)일 경우에는 초언어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5b)의 경우도 문법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 역시 무표적인 표현은 'neg + -고'의 표현이었을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SN의 경우는 의미론적 모순관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단어에 대한 반

접속사와 MN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R-함축과 MN의 관계이다. Horn(1985)는 R-함축에는 초언어적인 부정(초언어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한다⁶⁾. 이를 따른다면, R-함축만이 나타날 수 있는 PA에서 초언어적인 부정(초언어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 (6) She wasn't able to solve it.
- (7) a.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순서대로 일이 전개된 것은 아니야?⁷⁾
- b.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결혼했어.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적절하지 않다. (6), (7)의 예는 일반적으로 R-함축에 의한 의미강화의 예로 본다. 하지만 이들은 함축취소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6)은 함축취소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즉 ‘풀 수 있는데, 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절대 나타나지 않고, ‘못 풀었다’라는 DN의 의미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7)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의미에 대한 부정(초언어적)은 PA와 SN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R-함축과 Q-함축이라는 구분으로 SN과 MN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⁸⁾. 또 부정 접속사와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정민(2005)은 한국어의 대조화제(-은/-는)는 PA와만 공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8) a. 그녀는 황홀하지는 **않지만** 행복해.
 - b. *그녀는 행복하지는 **않지만** 황홀해.
- C. Lee(1999: (40))
- (9) a. *그녀는 황홀한 것은 **아니라** 행복해.

박으로서 MN의 하나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6) Horn(1985)는 R-함축에서 MN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를, 정보성의 측면과 R-함축에서는 의미적 모순관계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7) 간단히 언급했듯이, PA접속에서는 부정표지가 꼭 외현적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Schwenter(200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8) 물론 (7)과 (8)은 Levinson(2000)의 분류를 따르면 각각 M-발견법과 I-발견법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또 (8)을 Bach를 따라서 Implicature로 보았을 때 PA/SN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Schwenter(2001)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아니고 부분적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b. *그녀는 행복한 것은 **아니라** 황홀해.

(8a)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대조화제는 PA와 어울리지만 (9)의 예시에서 보듯이 SN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8b)에서 보듯이 PA의 경우에는 MN이 나타나지 않는다.

4. 한국어에서의 대조화제와 MN과의 상극

C. Lee(1999)는 한국어의 대조화제는 MN과 같이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한다.

- (10) a. 그녀는 남자를 세 명은 차지 않았어.
- b. 두 명은/*네 명은 차어. C. Lee(1999: (41))

(8b)와 (10)의 예시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대조화제는 MN과 같이 사용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C. Lee(1999)는 이러한 특성을 대조화제에 의해서 도출되는 대조집합은 진리조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⁹⁾. H. Lee(2005)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해서 대조화제는 초언어적인 대조집합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11) A: 한국에 모토웨이가 있다.
 - B: 한국에 모토웨이는 **없고**, 고속도로는 있다.
 - (12) A: 아빠 왔니?
 - B: 아빠는 **안** 왔고, 아버지께서는 오셨다.
- (H. Lee 2005: (26), (27))

H. Lee(2005)는 한국어의 대조화제에서 나타나는 (8b, 10)과 (11, 12)의 대조를 통해서 함축취소와 전제취소가 MN과도 DN과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척도라는 ‘개념적 내용’과 관계가 있는 (8b, 10)의 경우는 MN이 불가능 하지만, ‘개념적 내용(conceptual content)’과 관계없는 형식부정(11, 12)의 경우에는 MN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형태 부인(form

- 9) C. Lee(1999)는 동일지시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조화제에 의해서 상위질문(superquestion)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인다. 대화상대자가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잊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자네 아들은 잘 있나?’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 있다면, ‘내 딸은 잘 있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조화제에 의해서 인가되는 대조집합은 진리조건층위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denial)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MN과 함축취소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함축취소와 전제취소가 DN과 다른 점은 기대되지 않는 해석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함축취소와 전제취소가 MN과 공유하고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11, 12)의 예시가 같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만 가능한 현상이다. 즉 ‘모토웨이’와 ‘고속도로’가 동일한 표현인 줄 모르거나 다른 성질의 것들로 아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13) A: 사실 모토웨이가 한국어로 고속도로야.

B: a. 한국에는 모토웨이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구나.

b. *한국에는 모토웨이는 **아니라** 고속도로는 있어.

(13)의 A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서는 (11B)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13B, a)와 같은 발화를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고’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아니라’의 접속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고, 이 둘이 동일 지시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부정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H. Lee(2005)에서도 한국어의 MN은 SN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결접속사를 통해서도 MN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만 지적하는 선에서 넘어가고 있다. 또 (13B, b)와 같이 대조화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비문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접속사 ‘-고’는 추론유형과 상관없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논리적 연산자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PA와 SN이 화용론적인 정보를 제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는 ‘화용론적 중의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또 C. Lee(1999)는 연결접속사 ‘-고(and)’의 특성상¹⁰⁾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두 표현은 동일한 층위를 가리켜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통해서 (8b, 10)의 예시가 비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의 경우 대조화제와 부정이 나온 문장은 외연적 층위에서의 부정이 일어나지만, 뒤에 따라오는 표현은 MN의 층위를 나타내므로 비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10) 일반적으로 ‘아니고’와 ‘아니라’는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간단히 언급했듯이 ‘부정+ 연결접속사’의 경우 연결접속사를 단순한 논리연산자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즉 SN과 다르게 ‘아니고’의 추론유형과 성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서 C. Lee(1999)도 문장의 의미론적 층위가 화용론적인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들을 따르지 않고 ‘화용론적 중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Carston(1996)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MN이 화용론적 중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8b, 10)에서 연결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두 문장은 동일한 층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5. 부정의 적용 층위를 통한 MN의 분석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한국어의 대조화제는 초언어적 대조집합을 인가할 수 없고, DN만이 가능하다. (ii) 한국어에서도 MN은 SN접속사와만 공기된다. (iii) 함축유형과 부정접속사와의 관계에 의한 분석은 문제점이 있다. (iv) 접속사의 다양한 의미는 추론유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접속사와 연산자들의 화용론적 중의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서 MN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먼저 Horn(2002)는 MN을 설명하는 새로운 특성을 제시한다.

(14) 부정의 적용 영역 Horn(2002: (83); p. 79)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Horn은 MN과 ‘소통된 것(what is communicated)’, 실제적 의미론적 함의관계

		part of what is communicated	
		Yes	NO
Part of explicit content	YES	DN: propositional denial (Asserted)	MN: non-asserted content denial (전제취소 등)
	NO	MN: 함축취소	MN: form denial

를 가지는 것(explicit content)의 구분을 통해서 부정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MN의 틀로 묶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 ‘비활성적 단언(assertorically inert: 이하 AI)’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의미론적인 함의관계’를 가지면서도, ‘단언된 것(what is asserted)’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언’은 문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Stalnaker 1978). Horn은 의미론적 함의관계를 보이면서도 실제 문맥에 추가되지 못하는 층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barely’와 ‘almost’, ‘only’ 등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 (15) a. Bush barely won the election.
 b. Bush won the election.

'barely'의 의미만 간략히 살펴보자. 'barely'의 경우는 (15b)에서 보듯이 긍정적인 의미를 함의하지만, 오히려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등 부정어(negative term)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즉 'barely P'의 의미에서 P와 ~P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했다¹¹⁾. 실질적으로 ~P의 의미를 단언하고 P의 의미는 함축으로 설명하는 접근방식, ~P의 의미를 전제로 보려는 설명, P와 ~P를 모두 의미론적 함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 등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Horn은 실질적으로 'barely P'의 발화에서 P와 ~P가 '의미론적으로는 모두 함의' 되지만 'P'는 실질 발화에 있어서 단언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Horn(2002)은 이렇게 '단언되지 않은 것'이 부정되는 것을 MN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의 대상으로 MN을 설명하는 시도는 이미 Yoshimura(2001)에서도 볼 수 있다. Yoshimura는 '소통되지 않은 것(what is not communicated)'을 부정의 영역으로 할 때에 초언어적인 부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Horn(2002)는 위의 정의를 따르면 함축취소가 MN에서 빠지게 된다고 보고, 비활성적 단언을 MN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Horn은 각 함축취소, 전제취소, 형태부인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특성을 통해서 MN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MN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주 1 참조)은 위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기생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면 함축과 전제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제 '전제'를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화용론적인 정보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Horn(2002)을 따른다면 전제는 의미론적 함의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단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제 수용(accommodation)을 가정하면 전제도 문맥(context)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Horn(2002)에서는 이와 다르게 전제를 '의미론적인 함의관계'를 가지지만 문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함축도 실제 문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MN의 대상을 '단언되지 않은 것(what is not asserted)'으로 가정한다면 이는 실제적으로 문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부정접속사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이 가능해진다.

6. PA/SN의 구분과 초언어적 부정

앞에서 간략하게 PA와 SN이 단순히 추론유형에 의해서 구분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와 SN과 MN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SN과 PA의 구분을 단언(assertion)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어 보인다. 즉 실질적으로 문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언만이 PA에 의해서 대조될 수 있지만, SN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표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16) p PA q

- 문맥 확인: p와 q가 PA에 의해서 대조되고 각각 α 와 $\sim\alpha$ 의 의미가 추론되어야 한다. 그리고 p와 q는 일반적인 배경지식(common ground)에 위배되지 않고, 이 배경지식이 p와 q를 함의해야 한다.
- 문맥 변화: p, q 그리고 $\sim\alpha$ 를 common ground에 덧붙인다. (K nig & Benndorf(1998 : (3), p.371))

K nig & Benndorf는 위의 정의에 접속사와 공기될 수 있는 추론유형에 대한 제약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위의 추론에 대한 논의와 Horn(2002)의 개념을 따르면 위의 정의에 추론유형을 더하지 않고서도 부정된 의미가 문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MN과 PA가 서로 결합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대조화제가 왜 PA와 결합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한다. 대조화제의 의미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¹²⁾. 대조화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단언적(assertoric)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cf. 'only' in Horn 2002). 두 의미가 모두 단언적이라면 MN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조화제에 외연적 부정만 가능하다면, 대조화제는 PA와만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이 설명 가능할 것이다.

11) 이 둘을 Horn(2002)는 실제 세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부분(Polar component)과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proximal component)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진리조건은 Horn(2002)를 참조.

12) 'A는(CT) B이다'의 의미는 B의 집합에 포함되는 A가 존재하고(existential import), 그 A의 대조집합은 B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polar opposition)의 두 부분으로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C. Lee(1999) 참조.

7.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MN이 적용되는 층위를 통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부정접속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초언어적인 부정의 층위를 AI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설명된 대조접속사의 특성을 통해서 대조화제와 대조접속사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척도와 두 부정접속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MN으로 나타낼 수 없는 R-함축과 단언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

<References>

이정민. 2005. PA vs SN: 대조적 화제 대 대조적 초점 - 추론유형, 척도성 및 부정과 관련하여,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Burton-Roberts, Noel. 1989. On Horn's dilemma: presupposition and negation. *Journal of Linguistics* 25, 95-125.

Carston, Robyn. 1996. Metalinguistic negation and echoic use. *Journal of Pragmatics* 25, 309-330.

Horn, Laurence.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U. of Chicago Press.

Horn, Laurence. 2002. Assertoric inertia and NPI licensing. *CLS* 38.

K nig, Jean-Pierre and Beate Benndorf. 1998. Meaning and Context: German *aber* and *sondern*. in K nig, Jean-Pierre(eds.), *Discourse & Cognition: Bridging the Gap*. Stanford: CSLI.

Lee, Chungmin. 1999. Contrastive topic: a locus of the interface. Evidence from Korean and English. In Turner, K.(eds.), *The Semantic/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s*. Elsevier Science, Amsterdam, pp. 317-342.

Lee, Chungmin. 2000. Contrastive predicates and scales, *CLS* 36, 243-257.

Lee, Hye-Kyung. 2005. Presupposition and implicature under negation, *Journal of Pragmatics* 37, 595-609.

Levinson, Stephan C..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MIT:Press, Cambridge, MA.

Schwenter, Scott. 2001. A. Discourse makers and the PA/SN distinction, *Journal of linguistics*, 38, 34-69.

Stalnaker, Robert. 1978. Assertion. in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 Academic.

Yoshimura, Akiko. 2001. Cognitive-pragmatic approach to metalinguistic negation. *Proceedings of the Sophia Simposium on Negation*, ed. by Yasuhiko Kato, 113-32.